"국내 여자축구 최강 가리자"

내일 강진서 춘계여자축구 개막
초·중·고·대 47개팀 기량 겨뤄

지난해 강진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8회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강진군 제공〉

제9회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이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강진 종합운동장 등 4곳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47개팀(초 13팀·중 13팀·고 15팀·대 6팀), 2000여 명 (선수 1800명, 임원 2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

대회에 참가한 초·중·고등부 여자축구팀은 26일 오전 10시 강진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전남 광영중과 대구 상원중의 경기를 시작으로 예선 풀 리그 및 토너먼트를 거쳐 내달 2일 최강의 여자축구팀을 가린다.

또한 6개 팀이 참가한 대학부에서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영랑구장에서 경북 위덕대와 울산 과학대 경기를 시작으로 풀 리그 방식을 거쳐 내달 3일 결승전을 갖는다.

이번 대회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이 주최하고 강진군과 한국여자축구연맹이 주관하며 대한축구협회, 전라남도, 전남축구협회, 강진군체육회, 강진군 축구협회 등이 후원한다.

강진군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임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기장별 인력지원반과 자원봉사반, 의료지원반, 교통통제 및 안내반, 숙박안내 전담반 등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대회 기간 중 선수·임원을 포함한 가족 등 2500여명의 방문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약 20억여 원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3년 연속 강진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회인 만큼 강진의 따뜻하고 넉넉한 인심을 듬뿍 선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차범근·홍명보·박지성 역대 베스트 11

축구 월간지 '40년을 빛낸 베스트 11' 선정
'투톱' 차범근-이회택…골키퍼 부문 이운재

'차붐' 차범근과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산소탱크' 박지성이 한국 축구 사상 최고의 포지션별 스타로 뽑혔다.

국내의 대표적인 축구 월간지인 베스트일레븐은 24일 창간 40주년을 기념해 프로축구 15개 구단 사령탑과 축구 해설가(5명), 축구 기자(5명) 등 25명을 대상으로 '한국축구 40년을 빛낸 베스트 11'을 선정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3-5-2 포메이션에 맞춘 공격수에는 1980년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갈색폭격기'로 이름을 날리며 통산 98골을 뽑은 차범근 수원 삼성 감독과 1960-70년대 '아시아의 표범'으로 불렸던 이회택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나란히 선정됐다.

특히 '한국 축구 40년 최고의 스타'로도 뽑힌 차범근 감독은 전체 25명 중 24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원조 스트라이커 이회택 기술위원장도 10표를 끌어모았다.

반면 한국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로 활약했던 황선홍 부산 아이파크 감독(8표)과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대포알 같은 중거리슈팅을 보여줬던 최순호 강원FC 감독(5표), '반지의 제왕' 안정환(다롄스더.2표)은 차범근-이회택 듀오에 밀렸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미드필더 부문에선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트)이 가장 많은 24표를 얻었고 이어 김주성 축구협회 국제국장,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상 19표), 조광래 경남FC 감독(18표), 이영표(알 힐랄.13표)가 5명에 포함됐다.

현재 대표팀의 주전 왼쪽 풀백인 이영표는 미드필더 부문에서 쟁쟁한 선배들을 따돌렸다.

스리백 형태의 수비수로는 4회 연속 월드컵 출전에 빛나는 홍명보 올림픽대표팀 감독과 철벽 수비의 대명사로 통했던 김호 전 대전 시티즌 감독, 김정남 한국프로축구연맹 부회장이 역대 최고의 수비수로 인정을 받았다.

골키퍼 부문에선 현재 월드컵 대표팀의 주전 수문장인 이운재(수원 삼성)가 김병지(경남)를 제쳤다. /연합뉴스

"어린이축구교실 회원 모집합니다"

市생체회 이달말까지 선착순 30명
주 1회 2시간 이론·실기교육 병행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2010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무료회원을 이달말까지 모집한다.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 주최로 열리는 축구교실은 축구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기초체력을 키우고 전인교육 실천에 기여하기위해 운영되고 있다.

매년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축구교실은 내달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무료로 진행되며 각 구별로 1개소씩 총 5개소가 운영된다. 이번 모집은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축구교실에서는 주 1회 2시간씩 축구이론, 경기규칙, 팀 전술훈련 등을 내용으로 이론과 실기교육을 병행한다.

김창준 회장은 "유년기의 생활체육이 바탕이 된 엘리트체육이야말로 스포츠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며 "축구교실뿐 아니라 테니스, 농구, 음악줄넘기 등 생활체육프로그램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광주시생활체육회(062) 371-7330 http : //gwangjusportal.or.kr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월드컵 트로피 내달 한국온다

4월 19~21일 일반 공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우승국가에 수여되는 진짜 월드컵 트로피가 내달 한국에 온다.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코카콜라는 월드컵 트로피가 다음 달 19일 한국에 들어와 사흘 동안 공개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코카콜라는 도착 당일 트로피를 미디어에 미리 공개하고 21일에는 축구팬들이 가까이서 보고 기념사진도 촬영하도록 따로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트로피는 지구촌 잔치로서 월드컵의 열기를 북돋는다는 취지로 작년 9월 21일 스위스 본부를 떠나오는 5월 초까지 225일 동안 86개국을 돌게 된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다음달 15일까지 코카-콜라 블로그(http : //blog.naver.com/cokecast)에 '가장 기억에 남는 월드컵 순간'을 게재한 뒤 추첨을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

"맨유 이적 때 히딩크 배신하는 것 같았다"

박지성, 5년전 이적 당시 언급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펄펄 날자 그의 지난 일까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스포츠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는 24일(한국시각) "거스 히딩크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던 PSV에인트호벤(네덜란드)을 떠나 맨유로 옮긴 것은 아주 힘든 결정이었다"는 박지성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의 조언을 뿌리치고 자신의 마음을 따랐다고 전했다.

일본 교토에서 뛰던 박지성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을 4강에 올려놓은 히딩크 전 한국대표팀 감독의 부름으로 그해 말 에인트호벤 입단을 결정했고, 이후 네덜란드에서 히딩크 감독과 사제관계를 이어가다 2005년 여름 맨유로 이적했다. 당시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이 팀을 떠나려 하자 좀 더 에인트호벤에 있어주길 원했다.

박지성은 이번 인터뷰에서 "맨체스터로 가겠다고 마음을 굳혔을 때 히딩크 감독을 배신하는 것 같았다. 히딩크 감독은 내가 에인트호벤에 남아주길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결정하기가 어려웠다"라고 5년 전 일을 떠올렸다. /연합뉴스

진종오 월드컵 사격 10m '금빛 총성'

7개 국제대회 연속 우승

한국 사격의 간판 진종오(31·KT)가 국제사격연맹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진종오는 24일 호주 시드니 올림픽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본선 583점, 결선 99.4점으로 합계 682.4점을 기록해 옴카르 싱(합계 682.1점·인도)을 따돌리고 우승했다. 진종오는 이로써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50m 권총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7개 국제대회에서 연속으로 우승하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는 7월 세계선수권대회와 11월 광저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국 사격의 간판으로서 기대를 부풀렸다.

진종오는 "이번 대회에는 현지에 늦게 도착하는 통에 컨디션을 잘 조절해 결선에 오른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며 "하지만 금메달까지 따내게 돼서 뜻밖에 기쁨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내일 킥오프…8개월 대장정

실업축구 내셔널리그가 오는 26일 막을 올려 8개월 동안 레이스에 돌입한다.

올해 목포시청과 용인시청이 창단되면서 총 15개 팀이 참가할 '대한생명 2010 내셔널리그'는 오는 26일 오후 7시 수원시청과 고양KB 간 개막 경기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6일까지 정규리그 30라운드를 치른다.

전, 후반기로 나눠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총 210경기를 벌인다.

전, 후기 1위와 이 두 팀을 제외하고 통합 승점이 높은 두 팀이 4강 플레이오프를 벌이며 여기서 이긴 팀이 11월16일부터 홈 앤드 어웨이로 챔피언결정전을 치른다.

K-리그와 프로야구 등 다른 프로 종목과 중복을 피하려고 주말이 아닌 화요일과 금요일 등 주중 저녁 시간에 경기를 편성했다. 지난해 총 71경기가 치러졌던 야간경기는 141경기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연합뉴스